

KETI 연혁 및 업무소개

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공산품 품질향상과 수출증진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1970년 3월에 설립된 국가공인 시험연구기관이다. 창설 초기 KETI의 주 업무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검사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관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 들어 82년 전기용품형식승인기관 지정, 86년 KS 품질관리능력평가기관 지정, 87년 일본 JIS 공장심사기관 지정 등을 통하여 점차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KETI는 92년 정통부 전자과장해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다시 러시아 국가규격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94년에는 KOLAS(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음에 따라 전기전자분야의 전문시험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99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수년에 걸쳐 준비했던 결실을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국제전기기기위원회(IECEE)로부터 광분야의 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지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공인시험기관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도약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KETI는 이듬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02년에는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기기, 전기기기 분야 그리고 2007년에는 전기기기분야 규격추가, 의료기, 전선분야 역시 국제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008년 국제전기기기위원회로부터 공인인증기관

(NCB)으로 지정받게 되어 이를 통해 국내외에 공인된 시험인증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에 전세계 56개 국제시험인증기관(NCB) 중 24위에 오르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인증마크(TCO)에 대한 시험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 4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명실 공히 공인 시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되었다



조 준 래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영기획팀 과장
031-428-7535
jrcho@ketti.re.kr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갖춘 KETI는 이후 국내업체의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첨병의 역할을 하였다. 먼저 CCI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국가규격 CCC인증에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일본의 JET, UL APEX, COMOS와도 MOU를 체결 일본의 국가규격의 PSE인증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독일의 VDE, TUV PS, 스웨덴의 SEMKO, 노르웨이의 NEMKO, 미국의 ETL, 아르헨티나의 IRAM, 네델란드 KEMA 등과도 MOU를 체결하여 국내 제조업체가 외국에 제품을 보내지 않고도 해당국



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의 국가 규격획득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국내 업체는 기존의 절반이하의 가격과 기간에 해외인증 획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KEIT는 2006년 10월 현재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KS A 17025 : 2000 인정요건에 의거 2개의 시험분야 (3. 전기분야, 7. 광학 및 광도측정) 1707개 시험규격 그리고 2개 검사분야에 대하여 KOLAS 기관으로 인정받아 각종 시

험/검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국내 제조자의 제품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Laser 제품(60825 시리즈), Capacitor 제품(60384 시리즈)에 대한 CE 품목추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시험 및 인증 역량확보 그리고 해외 유명 시험·인증기관과의 MOU 확대를 통하여 내적으로는 연구원 역량 확보 및 외적으로는 국내 제조자의 품질 향상 및 해외 시장 개척에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기술표준 2008. 2

